

안실련에 교육용 소화기 기증



KFPA는 어린이 화재예방교육의 효과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11월 27일 1,000만원 상당의 실습용 연기소화기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에 기증했다.

소화기와 동일한 형태의 실습용 연기소화기는 포그액을 넣고 전기로 가열하면 실제 분말소화기와 유사한 상황을 재현할 수 있으며, 인체에 무해하여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편의 및 효과가 높다.

KFPA는 지난 2012년 안실련과 화재예방교육에 관한 MOU를 체결한 이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 안전지도자회 회원 중 83명을 화재안전 명예교사로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교육용 소화기를 기증한 바 있다. 화재안전 명예교사는 초등학교 및 유아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화기 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화재안전 우수건물」 추가 선정



KFPA는 12월 초 ▲삼성생명 당산빌딩(서울 당산동) ▲주나라나노텍(경기 용인시) ▲롯데마트 식품관(경기 안양시) ▲대구택(유) ▲LG넥스원(주) 구미공장 ▲STX엔진(주) 용인사업장 등 6개 업체를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는 KFPA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패」를 건물 입구에 부착함으로써 이용객들이 해당건물 이용 시 화재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화재안전 우수건물」은 시설의 설치상태, 유지관리, 경영진의 의식상태 및 사고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KFPA 각 지부별로 추천한 건물에 대해, 관리시스템, 화재폭발위험, 건물방화시설, 소방시설 등 전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 2회 주기로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전국 총 152개의 사업장이 화재안전 우

수건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건물은 1~2년마다 재심사를 거친 후 불합격인 경우 인정이 취소된다.

화재안전 우수건물 관계자에게는 KFPA가 실시하는 무료 방재기술교육과 화재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각종 세미나 우선 초청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2014 KFPA 이사장배 안전올동 경연대회」 개최



KFPA는 11월 21일 삼산기념 문화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014 KFPA 이사장배 안전올동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KFPA와 강남구 및 서초구 유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강남 및 서초 소방서가 후원한 「안전올동 경연대회」는 강남구 및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로 제3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 대신 재미있고 신나는 놀이를 통해 안전의식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영유아기 안전에 대한 동요를 부르고 율동을 하면서 화재예방에 대해 스스로 느끼고, 소방동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이다. 지난 10월 참가접수를 받은 결과 22개 어린이집 464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전 동영상 심사를 거쳐 10개 팀을 대상으로 본선 경연대회를 치렀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강남구 한티어린이집과 서초구 남태령어린이집에게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상과 상품권을 전달하였으며, 최우수상 4팀에게는 소방서장상과 상품권, 우수상 4팀에게는 유아종합지원센터장상과 상품권이 수여됐다.

국내·외 22개 사고사례를 분석한 「화재사례」 발간



KFPA는 2007년 이후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및 폭발 사례를 수집하여 편집한 「화재사례」 제2집을 발간하고, 12월 1일 손해보험사, 보험유관기관, 소방·방재업계, 학회 등에 배포했다. 「화재사례」는 대형 인명 및 물질 피해를 야기한 화재 또는 화재학적으로 의미가 크거나 연구할 가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얻은 자료들을 분석·평가·정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화재예방 업무에 활용하고자 발간된 것이다.

총 19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화재사례」는 국내사례 14건, 해외사례 8건이

NEWS

수록되어 있으며, 사례별로 건물개요, 화재상황 및 화재원인 분석, 인명 및 재산피해, 문제점 및 예방대책 등이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국내사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물류센터, 승례문, 공장, 고층건축물, 노인요양센터 등의 화재사례가 게재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오락실, 음식점, 고시텔, 노래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특성 및 예방대책을 집중분석하고 있다.

해외사례는 302명의 사상자를 낸 방콕 나이트클럽 화재를 비롯하여 사우스 캐롤라이나 소파 판매점, 홉카이도 노인요양시설, 상하이 고층아파트 등 8개 화재사례를 분석했다.

「화재보험 언더라이팅 참고서」 발간



KFPA는 손해보험 업계의 화재보험 언더라이팅 업무를 지원하고 일관된 화재보험 요율 적용을 통한 화재보험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보험 언더라이팅 참고서」를 발간하고 12월 초 손해보험사 및 보험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화재보험 언더라이팅 참고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KFPA와 손해보험사 위험관리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화재보험 관련

업종 및 공정종별 적용방법과 적용상의 유의사항, 근거자료 해설, 예시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과 위험품의 종류 및 규정, 소화설비 및 우량 물건 할인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주택·일반·공장 물건의 업종별 요율적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수록했다. 특히, 근래에 나타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실무적용상의 이견이 있는 조항을 정리, 신중 직업군의 직업종별 구분 및 업종 정의에 대한 적용 예시 및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공정물건과 관련하여 신설 작업요율코드 해설 및 위험품에 따른 공정요율코드 적용 등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방화·방범 기술 세미나 개최



있는 FLK 품질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올 4월부터 도난방범설비에도 FLK 품질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11월 20일(목) 오후 2시 방재시험연구원(경기 여주군 소재)에서 「방화·방범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인증을 반영키로 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건설사, 건축설계사, FLK 인증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화재보험요율 할인을 위한 소방설비 설계 방안 및 사례(KFPA 장영환 객개서비스팀장) △건축물 방화구획 시 방화문·방화셔틀 설치 및 현장 품질 관리방안(KFPA 방내회합 왕남용 책임연구원) △범죄예방설계 법제화 건축법 개정 내용(국도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철중 서기관) △범죄예방설계(CPTED)와 범죄예방기능 인증의 필요성(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이경훈 교수) 등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아파트 피난공간용 차열방화문에 대한 화재시험을 진행했다.

「제4회 화재조사 세미나」 및 「손해보험사 화재조사 간담회」 개최



KFPA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경기도 여주군 소재)에서 과학적인 화재발생 원인 규명과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제4회 화재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KFPA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화재사례 및 조사기술의 전문성 향상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화성액체의 연소형태 △구획실화재의 연소형태 △가스폭발 및 화재패턴분석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연소형태 △화재위험성 연구사례 등 화재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난해한 연소형태에 대한 해석기법과 연구사례에 관한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KFPA는 12월 4일 오후 4시 KFPA 2층 세미나실을 여의도 소재에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조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효율적인 화재조사 수행을 위한 손해보험사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재조사 기술 및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화사고와 P.분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화재재현실험을 통한 화재원인 규명 ▲제조물 화재 원인조사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했다.

KFPA 관계자는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어 실물크기의 화재재현실험을 통해 객관적인 화재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며 "손해보험사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화재조사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통해 민간 화재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